

## 청소년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와 고용구조

방 하 남\*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인구의 장기적 경제활동참여율 변동추이와 고용(실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은 학교교육의 이수, 군복무, 결혼·출산을 통한 자신의 가족형성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on)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연령단계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0여년간(1980년대 - 1990년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무엇보다도 동 연령집단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청소년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고(高)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따라서 대학졸업자들의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층의 고학력화를 낳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핵심단어 : 청소년, 노동시장, 학교교육체제, 경제활동참여, 고용구조, 실업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I. 서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장기추이 및 고용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인구는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학령에 해당하는 15-24세 사이의 연령계층을 지칭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졸업 후 군의무입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행위에 있어서 동질성이 높은 25-29세 연령층을 범위에 포함하여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계층을 청소년층으로 규정한다.

청소년기는 학교교육의 이수, (남자의 경우) 군복무, 결혼·출산 등 자신의 가족형성 그리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on)을 거치게 되는 역동적인 생애기간이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15-19세는 중학교-고등학교 재학단계, 20-24세는 대학교 재학단계, 25-29세는 군복무 및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생애기간동안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은 위에 언급한 일련의 전이과정과의 긴밀한 상호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생애단계에 따라서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기회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지난 10-2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여부는 일차적으로 생애단계에 따른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취업가능성 및 취업형태는 노동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기회구조와 관련 제도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구조적 요인들과 집단의 귀속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청소년층 내에서도 취업기회에 있어서 집단간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특정집단에 속한 개인의 선택과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노동력의 고용구조를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취업기회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와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는 청소년층의 노동시장참여 및 취업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은 청소년층의 급격한 고학력화와 대학졸업자들의 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따라서 대학졸업자들의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청

소년층 고학력화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의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할 것이다.

## II. 청소년층의 취학률 및 진학률 추이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동 연령층의 취학률 및 진학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해당 연령층의 진학률 및 취학률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참여율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특히 재학중인 청소년층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취학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은 서로 반대방향의 변화추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동 연령층의 고학력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졸업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쟁률이 높아짐으로써 고학력 실업의 문제와도 직결되게 된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청소년층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장기추이를 먼저 살펴본 후 다음 단락에서 경제활동 참여율 및 취업률의 추이를 논하기로 한다.

1970년 이래 청소년 연령층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취학률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김영화·백인종, 1990; 최영표 외, 1989). 아래 <표 1>의 자료에 의하면 만 15-17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에는 28.1%에 지나지 않았으나 5년 후인 1975년에는 41.0%, 다시 5년 후인 1980년에는 63.5%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는 88.0%, 1995년에는 91.8%, 1997년에는 94.6%를 기록하여 완전취학률에 접근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중학교 취학률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여 1970년에는 51.2%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0년에는 95.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985년에는 100.1%로 완전 취학률을 기록하였다.<sup>1)</sup> 한편 만 18-21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취학률은 1970년에는 8.4%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0년에는 거의 두 배인 15.9%로 증가하였고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는 15.9%에서 35.1%로 다시 두 배 이상 증가하였

1) 각급학교 취학률은 해당학령인구에 대한 해당학년에 취학해 있는 인구의 비율로 계산하는데 분모는 인구통계에서 가져오고, 분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해당학년(여기서는 중학교)에 취학해 있는 학생의 총수로 하기 때문에 100.0%를 넘을 수 있다.

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대학취학률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1980년대 초의 대학 정원 확대정책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초에는, 전문대학의 집중적인 증설로 인하여,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995년에는 55.1%, 불과 2년 후인 1997년에는 68.8%를 기록하여 동 연령대 대학취학률이 70%대를 향하고 있다.

〈표 1〉 학령인구의 각급학교 취학률 추이 : 1970 - 1997

학급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중학교	51.2	71.9	95.1	100.1	98.2	101.6	102.5	101.0
고등학교	28.1	41.0	63.5	79.5	88.0	91.8	92.6	94.6
고등교육기관	9.0	9.7	17.0	37.2	37.4	57.9	61.8	68.8

주 : 취학률(%) = (각급 학교 학생 수) / (각급 학교 취학 적령인구) \* 100

취학적령인구 = 만 12-14세 중학교 : 만 15-17세 고등학교 : 만 18-21세 대학교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의 교육지표』

청소년층의 위와 같이 높은 취학률은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의 높은 진학률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률 추이를 살펴본다. 먼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1970년의 약 70%에서 1980년에는 84.5%, 1990년에는 95.7%, 1997년에는 99.4%로 거의 완전진학률에 가깝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전문대학, 대학교)기관으로의 진학률은 1970년에는 약 27%, 1980년에는 오히려 줄어 23.7%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5년에는 36.4%로 급상승하였고, 1995년에는 51.4%, 1997년에는 다시 60.1%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4년제 대학진학률은 46.1%로 추정됨).

〈표 2〉 우리나라 청소년 학령인구의 연도별 진학률(%)

학교급별	'70	'80	'90	'97
초 → 중	66.1	95.8	99.8	99.9
중 → 고	70.1	84.5	95.7	99.4
고 → 대	27.0	23.7	51.4	60.1

주 : 대학진학률 = 대학 · 산업대 · 전문대 입학정원 / 고교 졸업생수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의 교육지표』

### Ⅲ.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 1. 경제활동인구의 정의

청소년 연령계층을 15-19세, 20-24세, 25-29세 세 계층으로 나누어 각 연령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추이를 살펴본다. 경제활동인구는 법정 생산가능연령인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와 미취업자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그 이외의 사람들 - 가정주부, 학생, 노인, 연소자, 심신장애자, 기타 보수없이 비영리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 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취업자라 함은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들과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기불순, 노동쟁의, 병가, 휴가 등으로) 일시 휴업중인 자들을 포함한다. 한편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한 사람과 (심신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건이 되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는 개념의 정의상 취업의 의사는 있지만 정보의 부족, 취업가능성에 대한 실망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실망실업자를 제외하고 있어서 실망실업자의 비율이 높은 청년층의 경우는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보다 상당히 하향 추정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2.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 정도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5-19세 연령층의 참여율은 1980년의 30.6%에서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에는 17.5%, 1990년에는 14.6%로 10년전인 1980년에 비해 1/2이하의 수준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감소추이는 계속되어 1995년에는 11.9%, 1997년에는 10.8%를 기록하였다. 15-19세 연령층의 참여율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동 연령층의 취학률과 진학률이 같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20-24세 연령층의 경우는 1980년 63.1%, 1985년 58.5%, 1990년 62.8%, 1995년 62.8%, 1997년 62.5%로 61-63% 사이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5-29세 연령층의 경우는 1980년 63.3%, 1985년 63.0%, 1990년 67.3%, 1995년

69.1%, 1997년 71.5%로 1985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 1980 - 1997

연 도	전체 ) =15세	15-19세	20-24세	25-29세
1980	59.0	30.6	63.1	63.3
1981	58.5	26.5	62.2	62.9
1982	58.6	24.9	62.2	63.5
1983	57.7	21.8	59.9	61.9
1984	55.8	18.5	57.6	61.7
1985	56.6	17.5	58.5	63.0
1986	57.1	16.7	59.8	63.5
1987	58.3	17.4	60.3	64.8
1988	58.5	15.1	60.7	65.0
1989	59.6	15.0	62.2	66.9
1990	60.0	14.6	62.8	67.3
1991	60.6	14.9	63.5	67.8
1992	60.9	14.5	62.5	68.1
1993	61.1	13.5	61.3	67.9
1994	61.7	12.9	62.1	68.5
1995	62.0	11.9	62.8	69.1
1996	62.0	11.1	62.8	70.2
1997	62.2	10.8	62.5	71.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1998), KLI 노동통계.

### 3. 여성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우리나라 여성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년 42.8%에서 1995년 48.3%, 1997년 49.5%까지 적은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5-19세 여성 청소년층의 참여율은 진학률 및 취학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1980년의 34.4%에서 1995년의 14.6%로 약 20% 정도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체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은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참여율이 전자의 급격한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증가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특히 1985-1990년 사이의 증가폭이 이전이나 이후 5년 기간들의 증가폭보다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20-24세, 25-29세 연령층의 증가폭이 크다).

여성의 연령계층별 참여율 추이에 있어서 두드러진 중요한 현상은 전통적인 양봉구조(bimodal structure)의 점차적인 쇠퇴이다(어수봉, 1992 참조). 즉 결혼-출산적령기(25-29세)를 전후로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대대적인 퇴출현상이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에 20-24세, 25-29세 연령층의 참여율이 각각 53.5%, 32.0%로 두 계층간의 차이가 20% 이상되었으나, 1997년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66.4%, 54.1%로 12% 정도의 차이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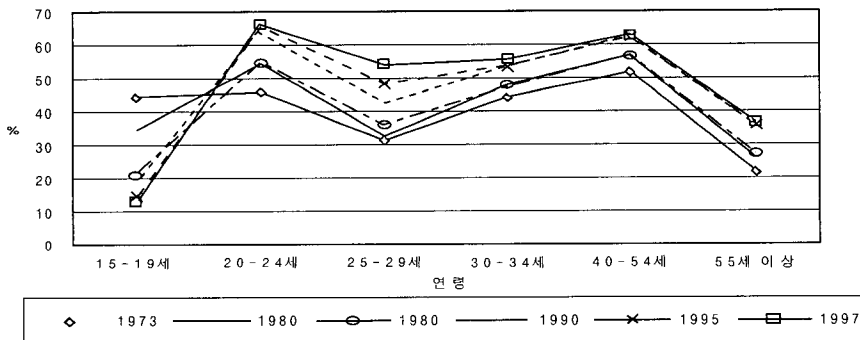
〈표 4〉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단위 : %)

연도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54세	55세 이상
1973	41.5	44.3	46.1	31.0	44.1	51.7	21.5
1980	42.8	34.4	53.5	32.0	46.6	56.2	25.7
1985	41.9	21.1	55.1	35.9	47.9	56.9	27.4
1990	47.0	18.7	64.6	42.5	53.2	61.5	34.5
1995	48.3	14.6	66.1	47.8	53.2	62.2	35.9
1997	49.5	13.1	66.4	54.1	55.8	63.0	36.7

출처 : 통계청, 통계분석자료모음, 1995 ; KLI, 노동통계, 1998.

〈그림 1〉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 1973 - 1997



#### 4. 청소년층 경제활동참여율의 국제비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의 국제비교를 해보면 아래 표에 나타난 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참여율은 외국의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15-19세 연령층의 경우, 우리나라는 참여율이 14.4%인데 비해 미국은 39.5%, 영국은 58.4%로 우리보다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국제적으로 아주 낮은 국가인 일본의 18.5% 보다도 4% 이상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인 20-24세의 경우도 역시 우리나라의 참여율은 외국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62.3%인데 비해 미국은 71.9%, 영국은 79.0%로 10-17% 정도 높고 일본의 경우도 75.1%로 국제수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며 우리에게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층의 참여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남성의 참여율이 여성의 참여율보다 두 연령계층 모두에서 더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주요국의 청소년층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 %, 1992 기준)

성별·연령계층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전 체	15-19세	14.4	39.5	58.4	18.5
	20-24세	62.3	71.9	79.0	75.1
남 성	15-19세	11.5	40.5	59.5	19.4
	20-24세	57.7	74.6	85.4	74.5
여 성	15-19세	17.4	38.5	57.2	17.6
	20-24세	65.3	69.1	72.5	75.6

출처 : 통계청, 통계분석자료모음, 1995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각국 청소년층 연령인구의 (1)취학률, (2)경제활동에 대한 선호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의 (3)취업 기회구조 - 즉 단시간(part-time), 임시직 등의 일자리의 보편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취학률이 높을수록 참여율은 낮을 것이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참여율은 높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선호도 혹은 선택은



물론 학자금, 용돈, 결혼비용 등에 대한 가족내 세대간의 소득이전양상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취학기간 동안에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의 가족내 소득이전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소득활동의 비율이 그만큼 낮은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취업구조상 재학중인 청소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들이 많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참여율도 낮을 것이고 취업률 또한 낮을 것이다. 단시간 취업자의 비율이 외국의 경우 13%(미국) - 23%(일본) 사이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1998년 현재 15 - 24세 청소년의 단시간 취업자비율은 9.8%, 25 - 29세의 단시간 취업자비율은 7.3%로 추정되고 있다(정인수, 1988). 현재 취업중인 청소년가운데 단시간근로자의 비율은 노동시장에서의 단시간취업일자리의 존재정도를 직접 나타내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러한 취업기회의 보편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단시간근로(파트타임) 비율 국제비교(30시간 이하)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한 국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6	1998.4
전 체	13.8	13.2	20.1	20.3	10.4	12.5	-	14.2	20.3	23.0	5.1	7.3
남 자	8.3	7.7	5.3	5.2	3.7	4.8	-	3.4	10.8	13.0	3.3	5.6
여 자	22.9	19.1	39.5	38.9	19.6	22.1	-	29.1	34.3	37.7	7.6	10.0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July 1997 ; 통계청, 사회통계과 (정인수, 1998에서 재인용)

#### Ⅳ. 청소년층의 고용구조

청소년층의 취업률 및 고용구조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및 제한에 반응하는 청소년층 자신의 노동력 공급행위, 즉 학업, 여가, 경제활동간 자신의 시간할당(allocation of time) 행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노동력에 대한 수요구조, 즉 취업기회구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본 단락에서는 청소년층의 고용구조를 위의 두 가지 측면, 즉 청소년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 본다.

## 1. 공급측면에서의 고용구조

청소년층은 대부분이 신규학졸자로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여 직장을 탐색하는 연령계층이다. 오스터만(Osterman, 1980)은 학교를 마친 젊은이들이 본격적인 성인기로 접어들기 전까지 직업과 관련하여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본다. 그 첫단계는 '탐색'(moratorium)기간으로서 이 기간에는 자기 진로의 열려진 가능성 때문에 안정된 직업보다는 여가활동과 동기들과의 그룹활동이 더 중요한 시기이며, 둘째는 '정착'(settling down)단계로서 안정된 직업을 탐색하게 되는 그래서 노동시장 참여가 더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되는 단계라고 한다. 탐색기간의 청소년층 노동력은 실업상태과 비경제활동상태 사이를 자주 넘나들게 되며 따라서 행위적 측면에서 볼 때 두 상태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직장탐색과정에서 안정된 직장에 정착하기 전까지 자발적 이직률이 높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보다는 자발적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Osterman, 1980).<sup>2)</sup> 또한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아르바이트 포함), 계약직, 단시간근로직(part-time) 등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졸자 취업실태 조사자료(방하남, 1997)에 의하면 전문대졸자들의 약 31%, 대졸자들의 약 36%가 첫 정규직장을 영구직장이 아닌 '다른 정식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임시직장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난 속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임시일자리에 취업을 하면서 직장탐색을 계속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자신의 학력과는 맞지않는 하향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위의 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대학졸업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일궁합(job-match)이 안맞거나, 전공과 안맞아 다른 정식 일자리를 더 찾기까지의 임시직으로 첫 입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끝까지 다닐' 영구직장으로 첫 입직을 하는 비율은 전문대졸자들의 경우 약 50%, 대졸자들의 경우 약 49%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약 2분의 1의 신규 취업자들은 첫 직장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공급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중 중

2) 이러한 견해에 대해 Evans, Franz, Martin(1984)은 주요 OECD국가들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요한 것으로 의무 군입대를 들어야 한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후나 대학교 재학중 혹은 졸업후에 일정기간 군대에 체류하게 되므로 청소년층의 상당부분이 실업의 위협에서 제외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관측된 실업률은 현실보다 하향 추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7〉 취직 당시 첫 직장에 대한 계획

(단위 : %)

	전문대 남자	전문대 여자	대학졸 남자	대학졸 여자
임시취업으로 생각	34.6	28.6	32.0	40.5
영구직장으로 생각	55.1	47.3	53.1	43.5
별 다른 생각없었음	10.3	24.1	14.9	16.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대졸자 취업실태조사”, 1997.

## 2. 수요측면에서의 구조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로서 무경험자가 많은 청소년층 노동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는 주로 임시-일용직 및 승진경로가 막힌 한계직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Brown, 1982). 따라서 실업의 종류를 발생론적 측면에서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등으로 나누어 볼 경우 이중 청소년층의 실업은 불황 30-호황간의 차이가 큰 경기적 실업, 임시-일용직 등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계절적 실업, 정보의 부족, 교육과 직업간의 불합치로 인한 마찰적 실업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 때나,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공급이 감소하는 겨울철 등에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Freeman and Wise, 1982).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용구조는 노동력 수요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에 의해 규정지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신규졸업자들의 취업 시장은 졸업적령기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취업기회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졸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업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연령제한적(age-restrictive) 간헐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방하남, 1997).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층 노동시장은 취업기회에 있어서 특히 고학력 사무직종 가운데 남-녀간의 성차별이 아주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3)</sup> 이처럼 공급자의 귀속적 특성에 따라서 취업기회 및 가

능성이 엄격하게 분절되고 차별화되고 있는 청소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자유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러한 수요구조 내에서의 청소년층의 고용구조는 따라서 성-연령에 따른 취업기회에 있어서의 분절 및 취업가능성에 있어서의 구조적 차이로 특징지어진다.

## V. 청소년층 실업률의 추이 및 특성

### 1. 청소년층 실업률의 장기추이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전체 실업률이 2-3%대의 자연실업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청소년층의 실업률은 8-10%대를 유지함으로써 전체 실업률보다 3-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실업률의 차이는 청소년 연령층을 제외한 주 노동력연령층과 대비할 경우 더 커지게 된다. 전체실업률은 1980년 5.2%, 1985년 4.0%, 1990년 2.4%, 1995년 2.0%(1997년 2.6%)로 장기 추이는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 15-19세 연령층의 경우 1980년 13.3%, 1985년 11.0%, 1990년 9.2%, 1995년 8.1%(1997년 9.9%)로 역시 전체 실업률의 장기적인 감소추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었다. 한편 청년층인 20-24세 연령층의 경우 1980년 10.3%, 1985년 9.6%, 1990년 6.3%, 1995년 5.9%(1997년 7.2%)로 10대인 15-19세에 비해 약 2-3% 정도 낮은 율이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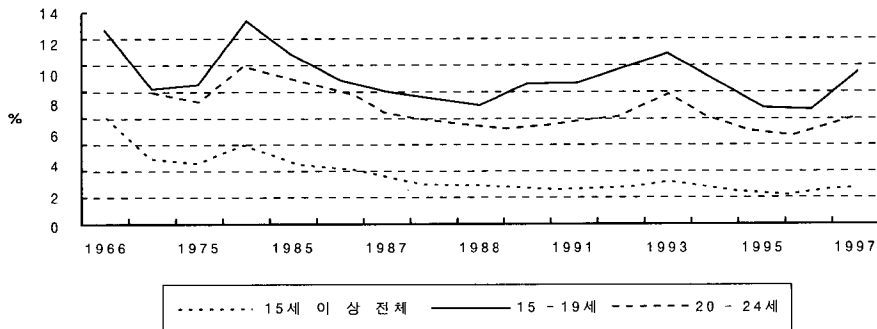
3) 그러나 이러한 성차별의 효과가 실업률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고학력 여성들 가운데 실망실업률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김장호, 1998).

〈표 8〉 연령계층별 실업률 장기추이

	15세이상 전체	15-19세	20-24세	25-54세	55세 이상
1966	(7.0)	(12.7)	(12.7)	(2.5)	-
1970	(4.4)	(8.9)	(8.8)	(3.0)	-
1975	(4.1)	(9.2)	(8.1)	(3.3)	-
1980	748(5.2)	159(13.3)	203(10.3)	367(3.8)	20(1.3)
1985	622(4.0)	79(11.1)	180(9.6)	349(3.1)	14(0.8)
1986	611(3.8)	66(9.5)	169(8.8)	364(3.1)	12(0.7)
1987	519(3.1)	65(8.7)	135(7.2)	306(2.5)	12(0.6)
1988	435(2.5)	54(8.3)	125(6.8)	246(1.9)	10(0.5)
1989	463(2.6)	52(7.8)	122(6.4)	274(2.1)	15(0.7)
1990	454(2.4)	59(9.2)	126(6.3)	255(1.9)	16(0.6)
1991	436(2.3)	59(9.2)	143(6.8)	222(1.6)	13(0.5)
1992	465(2.4)	60(10.2)	149(7.0)	242(1.7)	14(0.5)
1993	550(2.8)	57(11.2)	185(8.5)	294(2.1)	14(0.5)
1994	489(2.4)	45(9.3)	151(6.8)	279(1.9)	15(0.5)
1995	419(2.0)	36(7.5)	130(5.9)	234(1.6)	21(0.7)
1996	425(2.0)	32(7.5)	126(5.9)	250(1.6)	17(0.5)
1997	556(2.6)	42(9.9)	149(7.2)	333(2.1)	32(0.9)

자료 : KLI 노동통계, 1998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89, 1992.

〈그림 2〉 청소년의 연령계층별 실업률 장기추이



1970년대에는 수출산업에 힘입은 경제의 외형적 확대 재생산과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수요구조도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외형적 팽창을 하면서 청소년층 노동력을 대규모로 흡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는 2차 오일쇼크에 의한 심한 경기불황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전체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따라서 청소년층의 실업률도 함께 9-12%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경기의 재활성화로 인하여 청소년층의 실업률도 8-9%대로 낮아졌으나 '90년대에 들어서서는 다시 9-10%대로 높아져 '93년에는 11.2%로 '9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층의 실업률 추이의 특징은 전체 실업률 동향과 비슷하게 변하지만 불황기에는 청소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특히 장년층의 실업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층 노동력이 불황기가 시작되는 초기에 가장 먼저 취업난을 심하게 겪는 계층이며 또한 가장 먼저 해고의 대상이 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Evans, Franz, and Martin, 1984; Freeman and Wise, 1982).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IMF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1997년 12월과 1998년 1/4분기 사이의 짧은 기간에 청소년층 취업자의 감소추세가 타 연령층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98년 4월을 기준으로 볼 때(표 13) 전년의 같은 시점 대비 29세 이상 노동력 가운데 취업자의 감소율이 2.4%인데 비해 15-29세 연령층 가운데 감소율은 그보다 5배 이상 높은 13.7%를 기록하고 있다.

〈표 9〉 최근의 청년층 취업자 추이 : IMF 이전과 이후

(단위 : 천명, %)

	1997		1998			
	연평균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체	21,048( 1.5)	20,682(-0.2)	19,711(-3.4)	19,526(-3.7)	19,892(-4.1)	20,127(-5.1)
15~29세	5,159(-0.8)	5,018(-4.2)	4,656(-11.0)	4,554(-11.8)	4,495(-13.4)	4,497(-13.7)
29세이상	15,889( 2.3)	15,665( 1.2)	15,055(-0.7)	14,972(-0.9)	15,398(-0.9)	15,630(-2.4)

자료 :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실업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표 14) 15-24세 청소년층의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즉 1996년을 기준으

로 볼 때 우리나라는 6.1%이었으나 미국은 12.0%, 영국은 14.7%, 프랑스는 26.3%,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온 독일, 일본의 경우도 각각 8.0%, 6.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인 1998년(4월)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실업률은 1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심각한 고용사정을 반영해 주고 있다.

〈표 10〉 주요 OECD국가들의 청소년층 실업률(%)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한 국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8.4
15-24세	11.2	12.0	10.1	14.7	19.1	26.3	5.6	8.0	4.3	6.6	7.0	6.1	15.1
전체실업률	5.6	5.4	6.8	8.2	9.2	12.1	6.2	9.0	2.1	3.4	2.5	2.0	6.7

주 : 한국의 청소년층은 15~29세로 할 경우 실업률은 1988. 4 현재 11.8%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997, July (정인수, 1998).

## 2. 청소년층 실업률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아래 〈표 11〉는 학력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의 최근 실업률추이를 보여 준다. 우선 청소년 인구층의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이 연령 대에 따라서 정규성을 가진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규성은 성과 학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관측되고 있다. 15-19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계층(20-24세 : 25-29세)에 비해 특히 높은 것은 인문계고졸자들의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연령-학력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 차이는 어떠한가? 〈표 15〉의 자료에 의하면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남성 청소년층의 실업률이 여성 청소년층의 실업률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성차별)들에 의해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상 불리한 여건에 있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층 중 여성의 실업률이, 대부분의 경우, 남성들의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OECD, 1980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은 그 반대이다. 즉 여성들의 실업률이 남성들의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대현상이 관측되는 이유를 우리는 취업기회의 절대부족 혹은 입

직단계에서의 강한 성차별에 의해 특히 고학력(대졸) 여성 청소년층 가운데 실망실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Kim C.H. and Lee K.H, 1992). 또 다른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 25-30세 사이 결혼-출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잠재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비율이 동 연령층의 남성에게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활동패턴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어수봉, 1992).

〈표 11〉 성별·학력별·연령계층별 최근 실업률추이 : 1994 - 1997

(단위 : %)

	전 체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94	'95	'96	'97	'94	'95	'96	'97	'94	'95	'96	'97	'94	'95	'96	'97
남성																
15~19세	10.2	19.1	8.9	10.1	11.9	9.4	9.8	10.3	9.3	9.0	8.3	9.9	-	-	-	-
20~24세	9.0	7.7	8.2	7.5	5.5	5.4	9.1	8.0	8.5	7.3	7.3	7.2	18.3	13.4	13.5	8.9
25~29세	5.2	3.7	4.1	4.2	4.8	3.3	3.5	5.1	4.5	3.1	3.6	3.5	6.5	4.6	5.2	5.4
여성 전체																
15~19세	8.9	7.5	6.6	5.8	8.9	10.0	9.6	5.6	8.5	6.9	5.9	5.9	-	-	-	-
20~24세	5.4	4.9	4.5	5.4	5.4	2.5	3.2	3.8	4.1	3.9	3.9	4.7	9.9	6.2	6.2	6.8
25~29세	2.0	1.9	2.0	2.3	2.3	1.5	1.7	1.9	1.6	1.6	1.9	2.2	2.7	2.1	2.1	2.6

출처 : 통계청, 고용동향, 각년도 (김장호(1998)에서 재인용)

실업률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와 관련하여 위에 언급된 사실들은 신규 학교졸업자들의 객관적·취업률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여진다. 아래 〈표 16〉은 신규 학교졸업자들의 학력별 전체 취업률과 여성만의 취업률을 보여준다. 표의 자료에 의하면 동일 학력내에서의 성별 취업률의 차이는 고졸자와 대졸자 그룹이 서로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고졸자들의 경우 여성의 취업률이 전체에 비하여 약간 높은 편인 반면, 전문대 및 대졸자들의 경우는 여성의 취업률이 전체에 비하여 대략 10% 이상씩 낮아 고학력 신규졸업자 가운데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의 취업률에 비해 상당한 정도 낮은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 15〉에서 보여진 대로 실업률이 낮은 것은 고학력 여성 청년층 가운데 실망실업자의 비율이 그만큼 높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표 12〉 신규학교졸업자들의 학력별 취업률

(단위 : %)

년도	일반고졸		실업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85	16.2	24.2	60.4	65.6	57.2	46.9	52.1	31.7
1990	18.7	27.1	84.0	86.7	71.8	68.2	55.0	39.7
1995	26.4	28.5	90.9	91.1	74.2	70.9	60.9	50.0
1997	22.0	22.2	91.7	91.1	75.5	74.5	61.8	52.5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3. 대학졸업자들의 실업률

우리나라 청소년층 실업률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아래 표에 의하면 1980년 약 27% 정도이던 4년제 대졸자들의 졸업한 해의 순실업률(실업자/취업대상자)은 정원확대기 이후 1983년에는 33%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계속 급등하여 1987년 51.8%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신규실업률이 30%대까지 낮아지고 있으나 최근(1997)에는 약 38%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문대졸자들의 경우는 그 추세가 대졸자들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80년 초반까지 전문대졸자들의 신규실업률은 50%대를 상회하여 대졸자들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을 보였으나 1980년 초반 이후에는 상당한 크기로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여 1980년 중반 이후에는 30%대로 대졸자들보다 오히려 낮은 신규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1990년대에는 20%대로 접어들었다.

아래 〈표 14〉을 보면 20-24세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동 연령층 전체인구의 실업률보다 5-6%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1990년 20-24세 청년층 실업률이 6.3%인 반면 대졸이상자들 가운데서는 11.7%로 약 5%, 1998년 경기불황의 상황하에서는 각각 14.4%, 18.0%로 약 4% 정도의 차이로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졸실업률의 성별차이를 보면 20-24세 고학력자들 가운데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보다 5-10% 정도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1990년의 경우 남성은 18.7%, 여성은 8.7%로 10%의 차이를,

〈표 13〉 대학, 전문대학 신규 졸업자들의 실업률 추이(1965 - 1997)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3	1985	1987	1989
대 학	41.0	29.4	28.2	27.1	33.2	47.9	51.8	47.2
전문대학	38.1	45.3	47.7	58.7	49.5	42.8	39.7	31.7
대졸자전체	41.0	31.4	39.1	27.9	40.7	46.1	48.0	42.6

	1993	1994	1995	1996	1997
대 학	46.0	44.0	39.1	36.6	38.2
전문대학	27.5	31.2	25.8	21.8	24.5
대졸자전체	39.5	38.6	33.4	30.0	33.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1995년의 경우는 각각 13.4%, 6.2%로 약 7%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8년의 경기불황하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커져서 27.5% 대 15.2%로 12%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자내 남성 - 여성의 이러한 차이는 취업기회나 확률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는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공급행위의 독특성 - 즉 학교 졸업후 낮은 구직활동률과 높은 실망실업률로 인한 비경활상태에 머무는 비율이 큰 것 - 을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14〉 20 - 24세 대학 졸업자들의 성별 실업률추이 : 1989 - 1998

(단위 : %)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7	1998
계	13.0	11.7	10.9	10.5	13.0				18.0
남 자	19.2	16.9	18.7	14.6	21.5	18.3	13.4	8.9	27.5
여 자	10.8	9.7	8.7	9.3	11.0	9.9	6.2	6.8	15.2
20-24세 인구	6.4	6.3	6.8	7.0	8.5	6.8	5.9	7.2	14.4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9, 1992 ; 「통계분석자료모음」 (1995) ; KLI 노동통계, 1998.

## Ⅶ. 고학력화와 노동시장의 문제 : 대졸자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 1. 고학력화와 노동시장

한 사회의 산업화의 진전과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는 긴밀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화는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를 가져오고 거꾸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는 산업사회에서 점증하는 고기술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고도화된 생산구조로의 전이를 위해 필수적이다(Rubinson and Ralph, 1984). 동시에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는 취업기회, 직업신분 및 소득 등 개인과 가족의 생애기회(life-chance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평등한 분배구조로의 전이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고학력화현상(over-education)을 말할 때는, 그러나, 한 사회에서 산업의 고학력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할 때를 지칭한다. 고등교육기회의 확대가 경제의 기술구조를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생산의 일선에 적절히 투입이 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 사회의 분배구조를 보다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고학력자들이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이 될 수 있을 때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때 고등교육의 확대는 고학력 노동력의 과잉공급을 낳게 되고 생산적인 결과보다는 소모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sup>4)</sup>

근대화이론에 의하면 산업사회에서의 고학력화는 산업의 기술수요에 반응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즉 산업 및 직업의 기술요건이 높아짐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고학력화는 노동시장에서의 그러한 기술수요에 반응하는 공급측면의 반응이라는 것이다.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과 맥을 같이하는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 의하면 생산에 필요한 고급 인적자원의 양성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산업사회에서 고등교육기회의 팽창은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본의 형성, 인력의 선별적 배치, 다양한 기능인력의 공급 등의 역할을 하게된다는 것이다(Becker, 1954).

4) 대학진학률이 높은 대부분의 선진 산업사회에서도 노동력의 이러한 고학력화문제는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Archer, 1974 : Rubinson and Ralph, 1984).

한편 인적자본론을 비판하는 지위경쟁이론(status competition theory)에 의하면 현대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학력 학벌에 의해서 취업기회(job opportunity)와 생애기회(life-chances)가 차등화되는 학벌사회(credential society)로서 그러한 사회에서 고학력화는 사회적 지위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개인들의 경쟁적 투자라는 주장이다(Collins, 1979; Rubinson and Ralph, 1984). 이 이론에 의하면 직업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술은 (인적자본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학교교육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며 학업성과 직업적 성취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팽창의 주된 배후원인은 사회계층간의 지위경쟁이며 그 결과는 학력의 인플레이션상이라는 것이다.<sup>5)</sup>

위의 논의들에 의하면 고학력화로 인한 고학력 노동력의 초과공급은 두 가지 측면, 즉 노동시장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동시장적 측면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고학력, 고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의 수요를 창출해 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수요에 의한 측면으로는 학력이 사회적 지위에 직접 간접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벌사회에서 고학력에 대한 수요는 사회적 신분의 유지 상승을 위해 창출된 방어적 수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영화, 1990; Bowles, S. and H. Gintis, 1976; Collins, 1979).<sup>6)</sup> 고학력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젊은층의 결혼시장(marriage market)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대졸자와 고졸자의 결혼시장은 극단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사회적 신분의 유지 혹은 획득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은 결혼시장에서의 유리한 거래를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을 하고 있다(방하남, 1997). 이와 같이 학력취득 수준에 따라서 취업기회, 직업의 지위, 소득의 정도 등 노동시장 결과가 현저하게 차등화되는 기회구조 하에서는 시장의 상황과 개인의 성취동기가 상호 강화작용(interactive reinforcing)을 하여 고학력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5) 예를 들어 콜린스(Collins)의 연구에 의하면 전후 미국 노동력의 교육수준 향상 중 15%만이 직업(기술)구조상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학력경쟁의 실상 및 학력 및 학벌의 지대추구 행위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동시장구조와 고등교육체계간의 상호작용적 변화에 대하여서는 김영화·박인중(1990)을 참조.

## 2. 수요 - 공급간의 불합치문제로서의 고학력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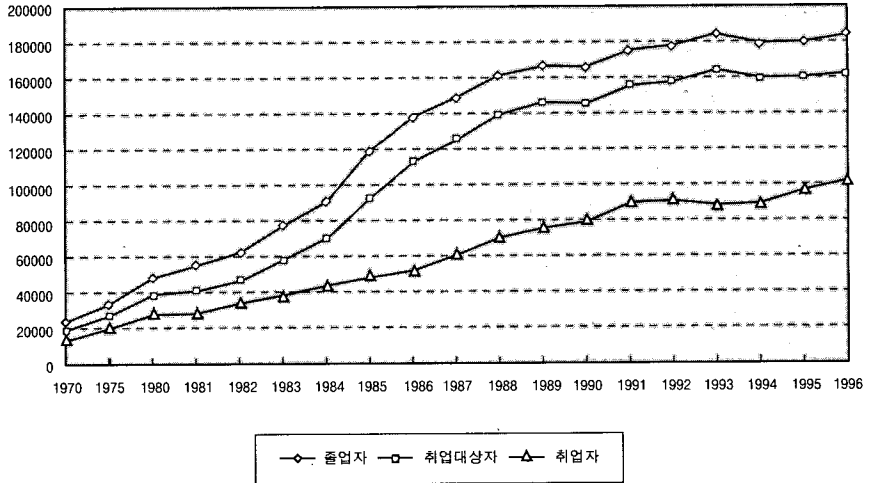
현재 고졸자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추세에서 고학력화의 결과 발생하는 노동시장 문제들로는 (1)취업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완전실업(open unemployment) 뿐만 아니라, (2)학력과 기술수준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기는 하향취업 및 불완전취업(underemployment)의 증가, 그리고 (3)예상되는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노동시장참여를 아예 포기하는 상당수의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 및 취업재수생의 정체 등으로 인한 (4)고학력 노동력의 낭비(underutilization)와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투자비용의 낭비문제를 들 수 있다(박세일, 1982 : 1983 참조).

지속적인 고학력화로 인해 심각해져 가는 대졸실업의 문제는 무엇보다 고학력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간의 극심한 불합치(mismatch)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김상대, 1994 : 이효수, 1991). 수요와 공급간의 불합치는 단순히 양적 의미에서의 과잉공급과 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내용상의 불합치를 들 수 있다. 양적 공급의 과잉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대졸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1980년 초반부터 누적된 문제이며 질적인 불합치는 산업의 수요와 대졸자들의 교육훈련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음으로써 생기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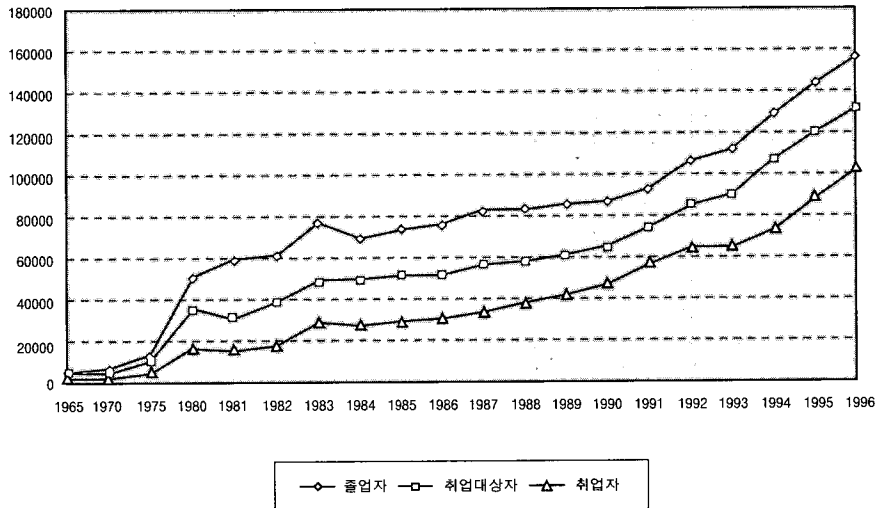
양적인 측면에서의 불합치 - 즉 공급과잉의 현상과 그로 인한 취업난은 1980년 이후 대졸자들의 공급추이 및 취업률추이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학정원에 대한 부분적 자율화 및 확대(졸업정원제)가 이루어진 1980년 이후 대졸자들의 증가율은 급등한 반면, 취업자수의 증가율은 졸업자 증가율에 훨씬 밑돌아 1980년 초 이후 1990년 후반까지도 졸업 - 취업률간의 간격이 커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3).

반면 전문대의 경우(그림 4)는 졸업자의 수가 1980년대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설립규정이 비교적 완화된 영향도 있고 누적되고 있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전문대에게까지 파급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영화 박인종, 1990). 그러나 전문대의 경우 졸업 - 취업률간의 간격은 대학졸업자들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졸업자와 취업자의 수가 거의 평행하게 증가하고 있어 실업의 문제가 대학졸업자들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대학교 졸업자수, 취업대상자수 및 취업자수 추이(1970 -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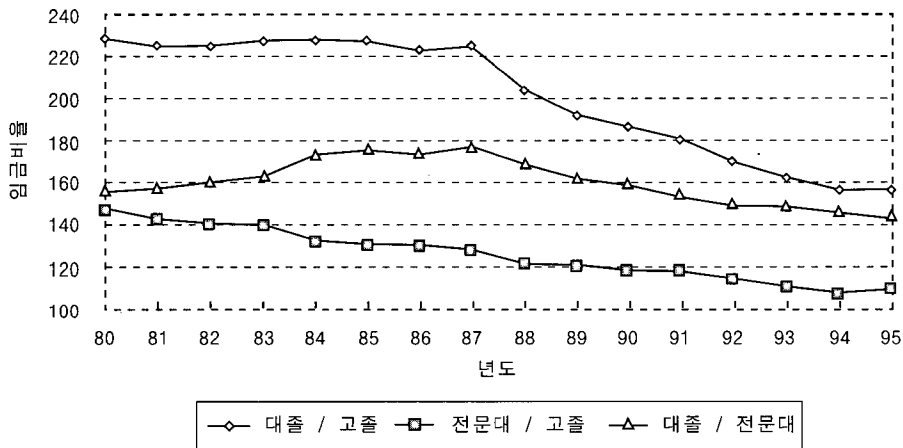


〈그림 4〉 전문대학 졸업자수, 취업대상자수 및 취업자수 추이(1970 - 1996)



한편 시장의 원리에 의하면 고학력자(상품)의 공급과잉은 임금프리미엄(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임금프리미엄의 하락은 공급의 축소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Freeman, 1976). 실제로 대졸자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던 1980년대 후반이후 학력간 임금격차는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학력간 상대적 임금의 이러한 지속적인 하락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가 되나 객관적인 결과는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단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가시화되고 있는 편이다.

〈그림 5〉 학력간 총임금의 비율추이 : 1980 - 1995



주: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 연간특별급여/12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KLI노동통계, 1997)

한편 고학력실업의 문제를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인력수요는 이공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대졸자들의 공급이 인문계 중심으로 급증해왔고 하고 있어서 질적인 불합치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신규대졸자들의 취업률은 따라서 전공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졸자들의 전공계열별 취업비율을 보면(표 15) 1996년 현재 이공 자연계열이 약 60%, 인문 사회계열이 약 40%로 전체 졸업

자 중 취업대상자의 비율과 비슷하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전공 취업비율의 추세를 보면 인문 사회계열의 비중은 1992년의 49.2%에서 1996년의 38.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공 자연계열의 비중은 1992년의 49.4%에서 1996년의 6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인력수요의 중심이 일반관리 사무직보다는 생산, 연구직(과학 기술직)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표 15〉 대졸자들의 계열별 취업비구성

(단위 : 명, %)

	계	구성비	인문 · 사회	구성비	이공 · 자연계	구성비	기타	구성비
1992	20,777	100	10,225	49.2	10,271	49.4	281	1.4
1993	26,095 (25.6)	100	11,098 (8.5)	42.5	14,799 (44.1)	56.7	198 (△29.5)	0.8
1994	31,821 (21.9)	100	12,622 (13.7)	39.7	18,854 (27.4)	59.3	345 (74.2)	1.0
1995	38,372 (20.6)	100	14,900 (18.0)	38.8	23,011 (22.0)	60.0	461 (33.6)	1.2
1996	32,888 (△14.3)	100	12,609 (△15.4)	38.3	19,896 (△13.5)	60.5	383 (△16.9)	1.2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3. 분절화된 구조 - 분절화된 기회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취업구조는 학력 - 학벌에 따라 취업가능성이 계층화되어 있는 분절된(segmented)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계층 사이에 취업기회 및 실업의 정도에 있어서 제도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sup>7)</sup> 즉 학력(고졸 - 대졸)별로

7) 노동시장에서 개인 혹은 그룹간에 존재하는 기회와 보상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시장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그 원인을 대별해 볼 수 있다. 시장적 요인은 개인(그룹)의 인적자원 등 시장가치에 있어서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으로 시장의 상황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제도적 요인(예, 성차별, 연령차별 등)에 의한 불평등은 '인위적인' 것이다.



노동시장이 명확하게 분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노동시장 내에서도 학벌에 따라서 취업가능 부문 및 취업가능성이 계층화되어 있는 구조이다. 특히 고학력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크게 분류되는 분절된 취업시장(segmented job market)의 성격이 농후하다(즉, 대기업은 1차 취업시장, 중소기업은 2차 취업시장).<sup>8)</sup> 이러한 분절된 취업시장의 존재는 두 부문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 및 직장의 장래성에 있어서의 현격한 차이 그리고 그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대졸자들의 강한 대기업 선호현상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1차 취업시장에서는 과도한 취업경쟁이 존재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2차 취업시장은 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율배반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학력 노동시장은 고전주의 경제학에서 그리고 있는 임금경쟁시장(wage competition market)이라기 보다는 출신학교에 따라서 취업가능성이 거의 선형적으로 결정되는 학벌에 따른 취업경쟁시장(job competition market)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sup>9)</sup> 즉 한국의 취업경쟁시장에서는 개인의 실질적인 생산성 차이에 따른 임금경쟁(wage-bid)에 의해서 취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기회(job openings)에 대한 경쟁이고 취업은 취업서열(job que)에서 있어서의 개인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sup>10)</sup>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졸 취업시장은 소속집단(학교)의 명목가치(사회적 서열)에 의해서 개인의 취업시장 서열(job queue)이 대부분 결정되게 되므로 취업기회에 있어서 학벌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8) 이중노동시장이론(Doeringer and Piore, 1971; Edwards et al., 1975; Piore, 1979)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서로 특성이 다른 두 개의 분절된(segmented) 구조, 즉 1차와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차 노동시장은 안정된 고용, 높은 임금, 잘 조직된 승진사다리 및 높은 승진가능성, 좋은 근무환경으로 특징지어지는 '좋은 일자리(good jobs)'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은 이와는 반대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낮은 승진가능성 및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특징인 '나쁜 일자리(bad jobs)'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1차-2차 노동시장은 또한 구조적인 장애로 인하여 노동의 교환이동이 차단되어 있어서 '열린시장(open market)'이 아닌 '닫힌시장(closed market)'이라는 것이다.

9) 임금경쟁(wage competition)시장 및 취업경쟁(job competition)시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Thurow(1975) 참조.

10) 이와 관련하여 박세일(1983)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졸자들의 고실업문제와 지속적인 고학력자의 병존현상은 대졸자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상대임금(wage)의 상하운동을 통한 가격조정 메커니즘이 아니라 채용 및 승진기준(selection criteria)의 상하이동을 통한 양적 조정의 특성이 강하다고 보고있다.

11) 이러한 취업경쟁체제에서는 공급과잉이 심화될수록 개인들은 자신들의 시장위치를 보전하거나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하는 필요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상황에서는 고학력자가 기술,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개인의 시장서열(labor que)의 보존을 위한 '방어적 투자(defensive investment)'로 보아야 할 것이다(Thurow, 1975).

취업시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대졸자들의 숫적 증가는 고학력자들의 고실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과 교육수준이 맞지 않는 하향취업의 문제, 즉 고용의 질적 문제를 낳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까지 위협하는 하향 과급효과를 낳고 있다(박세일, 1983; 어수봉, 1994). 이와 관련하여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방하남, 1997)에서 대졸자들의 하향취업 정도의 파악을 위해 '첫 직장에서의 주로 맡은 직무와 학력과의 합치상태'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를 보면(〈표 16〉) 전문대졸자의 약 37%, 대졸자의 약 41%는 첫 직장에서의 업무가 자신의 교육수준에 비해 낮은 직장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의 상당수가 (주관적인) '하향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하향취업의 비율은 대졸 남자와 전문대졸 여자 가운데서 각각 45%,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6〉 첫 직장에서 맡은 업무와 자신의 교육수준과의 적합성

(단위 : %)

	학력보다 수준낮음	수준 적합함	학력보다 수준높음
전문대 남자	30.8	35.9	33.3
전문대 여자	41.1	35.7	23.2
대학졸 남자	44.6	30.3	25.1
대학졸 여자	35.1	38.2	26.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방하남), 『신규대졸자 취업실태조사』, 1997.

## V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인구의 경제활동참여 추이 및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980-1990년대를 거쳐 청소년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15-19세 연령층의 경우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참여율이 그에 상응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이 학교교육을 마치게 되는 25-29세 연령층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여성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전후한 노동시장참여 양태에 있어서의 변화와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25-29세 젊은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 이후 노동시장참여율이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참여여부가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른 선택이라면 취업 여부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체계, 고용기회구조, 그리고 유형 무형의 제도적 요인들(예 : 성차별, 연령차별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층의 고용구조를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공급측면에서 청소년층은 직업에 대한 '탐색기'를 거치기 때문에 실업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직장탐색과정에서 자발적 이직의 빈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요측면에서 청소년 노동시장의 특징은 불황과 호황간 취업기회에 있어서의 변화가 큰 경기적 실업(고용)의 성격이 강하며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아 계절적으로 취업(실업)률이 크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규 학교졸업자들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경직된 채용관행에 의해 최초의 입직과정에서 개인의 학력·학벌뿐만 아니라 연령 및 성에 따른 차별이 제도화 되어있는 불평등한 고용구조이다.

청소년층의 고용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제도적 문제는 고학력화와 고학력자들의 실업의 문제이다. 청소년층의 고학력화 추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구조의 변화, 즉 점증하는 고기술(학력) 수요에 대한 공급측의 반응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 취업 기회가 학력·학벌에 의해 크게 차등화 되어있는 학벌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의 유지를 위한 방어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졸업자들의 고실업의 문제는 외부적으로는 위의 두 가지 요인(즉 노동시장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한 고학력 노동력의 공급초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청소년 고학력 노동시장은 학벌에 따른 취업경쟁시장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서 임금 및 근로조건이 크게 다른 분절된 노동시장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상대(1994), "대졸실업자 발생원인과 대책," 노동경제논집 제17권(2),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영화·박인중(1990),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구조변화에 대한 학교교육체제의 대응》, 한국교육개발원.
- 김장호(1998), "여성실업의 구조와 행태", Working Paper 9801, 한국노동연구원.
- 강무섭(1998), "청소년실업자를 위한 교육대책,"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자료.
- 권태환·김태현·최진호(1995), 《한국의 인구나 가족》, 일신사.
- 노동부(1997), 《96년 대졸자 채용현황 조사결과》.
- 박세일(1982), "고등교육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I)", 《한국개발연구》제4권(4).
- 박세일(1983), "고등교육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II)", 《한국개발연구》제5권(1).
- 방하남(1997), "고학력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자료.
- 안계춘(1995), "한국인구의 노령화와 특성". 《한국사회학》 제29집(겨울).
- 어수봉(1992),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1994), 《한국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1994), "우리나라의 일궁합 실태와 노동이동(I)", 노동경제논집 제17권(2),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 건(1997), "고학력자 노동시장의 고용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미출판원고).
- 이규식(1997), "인구변동과 보건문제 : 노령화를 중심으로". 《인구변화와 삶의 질》 한국인구학회편. 일신사.
- 이효수(1991), 《고학력화 현상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이홍탁(1997), "인구와 삶의 질 : 인구변동과 사회발전". 《인구변화와 삶의 질》 한국인구학회편. 일신사.
- 정인수(1998), "청소년실업현황과 고용촉진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자료.
- 최영표 외(1989), 《고학력화현상의 진단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한경혜. 1997. "인구변동과 가족생활". 《인구변화와 삶의 질》 한국인구학회편. 일신사.
- Archer, M. S.(1974), "Theorizing about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Systems," in Archer, M.S. (eds), *The Sociology of Educational Expansion : Take-Off, Growth, and Inflation in Educational Systems*. New York : Sage Pub.
- Becker, G. (1954).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NBER,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 Bianchi, S. and S. Spain(1986), *American Women in Transition*. New York : Sage.
- Bowles, S. and H. Gintis(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 : Basic.
- Brown, C.(1982), "Dead-End Jobs and Youth Unemployment," in R. B. Freeman and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llins, R(1979). *The Credential Society : A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Evans, John, W. Franz, and J. P. Martin. "Youth Labor Market Dynamics and Unemployment : An Overview" in *The Nature of Youth Unemployment*. Paris, OECD. 1984.
- Freeman, R. B. and D. A. Wise(1982),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in R. B. Freeman and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 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Chicago : t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scheider, F. and L. Waite. 1991. *New Families and No Families?* RAND Corp.
- Kim, C.H. and K.H. Lee(1992), "Youth Unemployment in Korea" in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 OECD(1984), 「The Nature of Youth Unemployment」.
- (1995), *The OECD Jobs Study : Implementing the Strategy*. Paris, OECD.
- (1997), 「Employment Outlook」.
- Osterman, P.(1980), *Getting Started : The Youth Labor Market*. Cambridge, MA : MIT Press.
- Rubinson, R. and J. Ralph(1984), "Technical Change and the Expansion of 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1890 - 1970," *Sociology of Education*, vol. 57(July).
- Thurow, L.C.(1976), *Generating Inequality : Mechanisms of Distribution in the U.S. Economy*. Basic Books.
- World Bank(1994), *Averting the Old Age Crisis :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 경제기획원(1989),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
- (1995), 《통계분석자료모음》(지난 30년간 고용사정추이).
- (1996), 《장래인구추계》.
- (1997),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 (1997), 《199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의 교육지표 1996》.
- 한국노동연구원(1997), 《대졸자 취업실태조사》.
- (1998), KLI 노동통계, 1998.
- (1998), KLI Quarterly Labor Review, Vol 11 - 1,2.

Abstract

---

## Trend and Differentials in Youth'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over the Last Two Decades (1980's - 1990's)

Hanam Phang

This paper documents and discusses trends and differentials in youth's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and employment. Youth in this study is defined as the young aged 15-29. Youth passes through a series of life-course transitions, which include school completion, own family formation(marriage and childbirth), mandatory service in the army (by males), and their economic activities are affected by those life-course events. Accordingly we show how and to what extent youth'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varies with age and how the age pattern has changed over time.

Throughout the 1980's and 1990's, youth's labor force participation showed different trends by age group.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the 15-19 aged steeply decreased, while that of the 25-29 steadily increased during the two decades, the rate for the 20-24 aged showing not much variation. The former is due to the increased rate of school enrollment among the age group, while the latter could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young women's increased and more steady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over time.

While labor force participa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one's choices and preferences, employment opportunities are more or less restricted by labor market structure and institutions. This study documents how the structural constraints have interacted with individual and group attributes to differentiate employment opportunities between individuals (educational background) and groups (especially sex differences). One of the most salient feature of youth's employment structure is the recent high unemployment rate of the college graduates. We discuss how that is related to the 'credential society' in which one's educational credentials

and it's social status play major role in determining who gets what in terms of job opportunities. Also is discussed the discordance between school and labor market supply and demand system, which is apparent in the prolonged oversupply of the college graduates, which is due to the consistently high rate of college entrance observed since the early 1980's. Theoretically the job market for college graduates is viewed not as the 'neoclassical' wage competition market but as job competition market in which one's (good) job opportunity is determined by one's position in the job queue, which is in turn heavily dependent on from which college one get's his/her college degree as well as one's sex.

Key words : youth, labor market, educational system, labor force participation, employment structure, usnemployment